



# 충성대신보



▲ 개교 50주년 행사간 학교장·영천시장·총동문회장이 함께 열병을 하고 있다.

##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빛날 '명문사관학교'

### '도전 50년, 도약 100년' 개교 50주년 기념식 열려

개교 50주년을 맞은 본교는 지난 10월 15일, '도전 50년 도약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역대학교장 및 영천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제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지난 50년간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저력을 바탕으로 도약 100년의 결의를 다지며, 군에게는 자긍심이 되고 국민으로부터는 사랑받고 신뢰받는 명문사관학교로 도약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학교는 지난 1968년 개교한 이래, 수많은 동문과 장병들의 피땀어린 헌신과 노력으로 정예장교 양성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쌓아왔다. 지난 50년간 배출된 15만여 명의 정예장교들은 월남전,

대침투작전 등에서 맹활약하였고, 지금도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가안보의 중추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부대약사 보고에 이어 ▶학교에 도움을 주신 분들 핸드프린팅 ▶열병 ▶축전낭독 ▶축하비행 ▶분열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분열은 재학생 8개 제대와 동문 1개 제대로 편성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기념사진 촬영은 재학생과 현역간부들이 학교 모표 형태의 대형을 연병장에 만들고 참석한 주요내빈들이 그 속에 들어가 함께 한 가운데 실시하여 화합의 행사로 승화시켰다.



▲ '도전 50년! 도약 100년!' 이 새겨진 기념석 제막식을 실시했다

기념식 직전에는 '도전 50년! 도약

100년!' 이 새겨진 기념석 제막식을 실시했다. 지난 50년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을 담아 사열대 후면에 너비 4.6m, 높이 2.1m의 자연석을 설치했다.



▲ 청악 이흥화명인께서 본청 앞에서 '도전 50년! 도약 100년! 육군3사관학교'라는 대형 붓글씨 포퍼먼스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청악 이흥화 명인께서 본청 앞에서 '도전 50년! 도약 100년! 육군3사관학교'라는 대형 붓글씨 포퍼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학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걸어 온 지난 50년은 절·

절·포(절대절대 포기하지 말자)정신으로 제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명문사관학교를 만들었다"며, "도약 100년의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편입학사관학교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학교는 100년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향을 구체화하여 명문사관학교의 명성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정훈공보장교 대위 조동열

- 02 50주년 특집 | 기념사, 축전, 축사
- 04 생도광장 | 우리들의 이야기(50주년 특집)
- 06 기획취재 | 풍산 안강공정장 이호동전무



07 50주년 특집 | 50주년 발자취

# 학교장 개교 50주년 기념사



먼저, 우리 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내외귀빈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을 학교의 전 사관생도와 장병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학교에 대한 크나큰 사랑으로 지속적인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각 단체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오늘 근무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개교 50주년을 자축하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충성대 가족과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학교는 지난 1968년 10월 15일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15만여 명의 정예장교를 양성하며 명실상부 '호국간성의 요람'으로 자리 매김하였고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50년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소임을 다해 온 세월이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월남전 참전과 대침투작전은 물론, 경계 작전 및 교육훈련에 헌신을 다하여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 소초로부터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각급 제대에서 지휘관과 참모로 軍 본연의 임무완수에 충실한 참 군인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전역 후 예비역이 되어서도 학교 출신 장교답게 각계각층에서 국가발전의 핵심동량으로 활동하며 충성대인의 명예를 드높여 왔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3사인들이 군인의 표상으로서 군과 사회에서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생도시절부터 '조국·충용·명예'의 교훈아래 불철주야 자신을 채찍질하고 담금질해 온 결과이며, 이제는 충성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땀과 눈물과 소망의 결실로 지천명(知天命)의 연륜만큼이나 장엄한 역사와 눈부신 영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개교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학교발전을 이끌어 오신 역대학교장님과 선배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선·후배님과 자녀를 보내주신 학부모님, 충성대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교장으로서 학교가 도전해 온 50년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사관생도와 충성대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으며, 오히려 앞선 군사력을 보유한 주변국의 군사적·비군사적 위협마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호국간성의 요람'인 우리학교가 나아갈 방향은 전쟁 없는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국방개혁 2.0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도약적 변혁을 주도하고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적인 인재를 육성하여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50년간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제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명문사관학교를 만들어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성대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한 가운데, 각자 위치에서 학교발전과 정예장교 양성에 매진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도약 100년'의 비전은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의 안보도 반석위에 놓여질 것임을 명심하고 그 결의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차 미래국방의 주역인 사관생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절절포 정신으로 무장하고 사관생도 본연의 임무인 학업에 정진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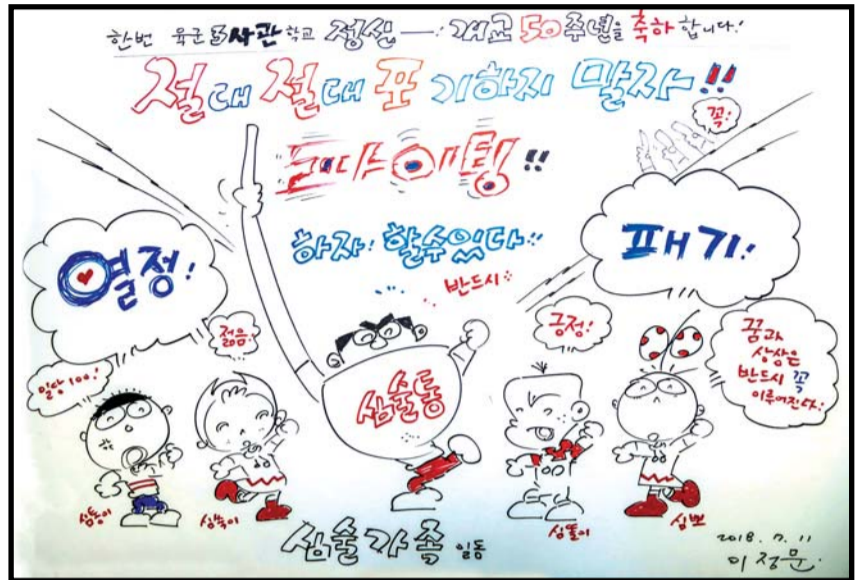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이 되어,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학교의 명예와 전통을 더욱 빛내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귀빈과 선·후배 동문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오늘을 계기로 우리 학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명문사관학교로 자리매김 하여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 창설 50주년을 경축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교 홍보위원 심술통·머털도사의 축하 만화

개교 50주년을 맞아 7·80년대 명랑만화(明朗漫畫)의 거장 이정문(76)·이두호(75)·윤승운(75)화백이 축하만화를 그려 주셨습니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도전 50년, 도약 100년을 위해 긴 여정을 걷고 있는 육군3사관학교 개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육군3사관학교 개교 50주년을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이만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육군3사관학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산과 들에 풍요로움이 가득한 가을을 맞아 「육군3사관학교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육군3사관학교 서정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뜻 깊은 행사에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나 그러지 못해 정말 송구합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육군3사관학교는 대한민국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명실공히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요람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현장에 여러분은 항상 그곳에 있었으며, 국가변영의 현장에도 우리 육군3사관학교 가족 여러분들이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내외의 위협에 대처하고 국가안보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육군3사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3사기 대표 남훈조



정병강군의 초석 육군3사관학교 창설 50주년을 축하하며 천군만마의 기세로 힘찬 전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



정에 육군장교의 산실, 육군3사관학교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하고 자랑스러운 육군'의 발전을 선도하며 육군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진력하고 있는 학교장 서정열 소장을 비롯한 교수 및 훈육요원과 사관생도, 그리고 모든 장병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육군3사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육군참모총장 대장 김용우



“도전 50년, 도약 100년” 육군3사관학교 개교 50주년을 육군 전 장병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호국간성의 요람으로서 爲國獻身の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육군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무적(無敵)의 전사(戰士)공동체’로 재탄생하도록 학교장 서정열 소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열정을 다함께 쏟아주길 당부하며, 충성대의 무궁한 발전과 생도, 교수 및 장병, 군무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10전군사령관 대장 박종진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국·명예·충용’의 교훈 아래 정예장교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54·55기 사관생도들과 서정열 학교장과 함께 미래의 인재를 길러 내고 있는 충성대 전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며, ‘50년의 도전, 100년의 도약’ 육군3사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2작전사령관 대장 황인권



육군3사관학교 개교 50주년을 제2작전사 전 장병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호국간성의 요람으로서 전문성과 훌륭한 인성을 갖춘 최정예 전투리더 양성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충성대 장병 여러분의 건승과 육군3사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육군사관학교장 중장 정진경



육군3사관학교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국, 명예, 충용의 교훈 아래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육군3사관학교 전 장병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개교 50주년을 맞아 서정열 학교장님을 비롯한 전 장병의 건승과 육군3사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군사관학교장 중장 황성진



높은 산에 내려앉은 오색의 단풍과 넓은 들판에서 자라는 황금의 벼들이 멋지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 시기에 국가와 군이 요구하는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 장군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조국·명예·충용」의 교훈 아래 국가발전과 국익증진, 그리고 사회발전을 위한 최고의 인재 양성을 위해 오로지 한길을 걸어온 3사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공군사관학교 전 장병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달 이곳 공사에서 있었던 친선교류 행사에서 3사 생도들이 보여준 토론능력과 체력, 그리고 절도 있는 행동은 평소 서 장군께서 생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절·절·포 정신」이 안정되게 자리잡아 빛을 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췌록, 서 장군께서 꿈꾸는 정예장교의 모습이 미래 육군을 선도하고 국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든든한 지양분이 되길 바라며, 개교 50주년의 성과를 넘어 더 큰 발전이 있는 3사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김정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육군3사관학교 창설 50주년을 수도방위사령부 전 장병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원불멸의 육군 정예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서정열 학교장을 비롯한 전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대한의 미래! 육군의 자부심!의 육군3사관학교가 될 것이라 믿으며, 성공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50주년 학교 창설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경북도립국악단 공연



▲ 경북도립무용단 '오고무' 공연



▲ 경북도립무용단 '부채춤' 공연



▲ 경북도립국악단 타악협주곡



◀ '충성대의 밤' 진행을 맡은 김영진 아나운서와 학교장의 기념촬영



# 사관생도 우리들의 이야기 충성제

54기 기자생도 정영찬, 박성원, 심진보, 홍동민

열정과 화합, 꿈 그리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축제의 '場'



▲ 생도 장기지랑 '댄스TF팀' 공연



▲ '너의 목소리가 보여' 나얼 저격수 권민제



▲ '17년 학교 홍보대사 위촉된 리브하이'



▲ 축제의 여왕 '레이샤' 공연



▲ '충성대의 밤'을 환하게 밝히는 '헤이즈'



▲ KBS국악관현악단 공연 진행 명창 최지안



▲ KBS국악관현악단 대취타 공연



▲ KBS국악관현악단 공연



▲ 동락연희단의 복합공연 (사물놀이, 판소리, 비보이, 비트박스)



▲ 국방TV 위문열차 공연



▲ KBS국악관현악단 공연

# 체육대회



▲ 기념촬영



▲ 족구



▲ 환호하는 관객들



▲ 축구



▲ 줄다리기



▲ 기마전



▲ 태권도



▲ 응원전 1



▲ 응원전 2



▲ 가족/지역 참여 이벤트로 만남의 장 마련



▲ 충성제 행사간 작은 음악회 진행



▲ SMART드론부를 통한 드론체험



▲ 민·관·군이 하나로 충성 음악회

“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생도들만의 재능과 끼를 선보이는 행사인 충성제를 실시했다.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충성제 기간에는 체육대회, 국궁·드론 체험, 경북도립예술단 공연, 충성대의 밤, KBS국악관현악단 공연, 국군방송 위문열차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생도 가족과 지역주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



▲ 충성제 체육대회(응원전)



‘총알의 왕국’으로 통하는 풍산 안강공장을 다녀오다

# 국내 방산 수출 1위 풍산 안강 공장장 이호동 전무



▲ 55기 사관생도 김유란·신창윤이 이호동 전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최후의 방어선 사수를 위한 격전지였던 영천과 안강에 본교와 풍산 안강사업장이 들어선 것은 결코 역사적인 우연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보다 풍산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방위산업이 태동한 산실(産室)에 직접 방문하였다.

**Q** 육군3사관학교는 올해 10월 개교 50주년을 맞이합니다. 풍산 또한 올해 창립 50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반세기 세월 인접한 곳에서 함께 걸어온 풍산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풍산은 1968년 설립된 우리나라 첫 현대식 신동(伸銅)업체이자 방위산업체(防産)입니다. 신동은 구리를 가공하여 각 산업에 필요로 하는 소재를 공급하는 것이며, 방산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군(軍)이 사용하는 각종 무기체계와 물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군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K2소총, K11 복합형 소총,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K21 보병전투장갑차 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 및 공군 전투기까지 풍산이 개발하는 탄약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풍산은 미래형 첨단 탄약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Q** 5.56mm 소구경탄약에서부터 대공포탄, 박격포탄, 곡사포탄 등 우리 군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탄약을 만들어 국내 방산 수출 1위 업체로 자리 매김하기까지 풍산의 원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세계 최고의 종합탄약업체로의 성장을 목표로 풍산은 세계 유일의 소재부터 부품과 완성탄, 신관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된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완성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탄약업체나 조병장으로 탄약 부품과 반제품을 수출함은



물론 아예 해외 탄약공장을 구축하거나 설비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플랜트 엔지니어링까지 탄약에 대한 고객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경쟁력 향상으로 수주와 생산이 증대되고, 높아진 가동률이 재투자과 사원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를 이루어내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핵심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Q**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GP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 남북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군사적 긴장완화가 방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요?

**A** 남북의 평화무드는 비단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남북 화해로 군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방산 또한 국가안보와 군 전투력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방위산업은 과거 화력전의 개념에서 첨단 무기체계 산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 풍산은 이미 각종 정밀 스마트 탄약의 개발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방위산업 전시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전력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Q**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풍산이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A**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체이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준비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전 생산과 물류 과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미래의 전장환경에 대비한 탄약체계를 개발하여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공급하고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회

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Q** 사관생도들은 지금도 풍산이 만든 탄약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훈련을 실시하게 될 사관생도들에게 정예장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A** 155밀리 곡사포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철 소재를 고온에서 단조(鍛造)하고, 초경합금으로 정밀가공한 다음 여러단계 열처리하고, 이를 표면처리한 뒤 도장하여 금속 탄체를 만들고, 여기에 화약을 충전하고 부품을 결합하여 완성탄을 조립합니다. 100여 단계가 넘는 공정 사이사이에는 철저한 전수검사가 있으며, 완성탄은 실제 총기와 화포에서 발사하여 모든 기능과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수락시험을 합격해야 군으로 인도됩니다. 이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군에서 풍산 탄약을 믿고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교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지금 생도 시절을 통해 겪는 모든 교육과 훈련이 바로 이 탄약을 생산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



고 봅니다. 최고의 탄약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설비를 구축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최고의 학교에서 생도생활을 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훌륭한 장교로 태어날 수 있는 훈련과정을 잘 마무리하여 우리 군의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Q** 앞서 언급했듯이 육군3사관학교도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학교와 풍산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A** 1968년 당시는 청와대와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푸에블로호 납북 등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백척간두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풍산은 당시 창업주, 기술자, 현장 모두 사업이 아니라 전방의 군인과 함께 ‘나라를 지킨다’라는 사명감으로 불철주야 소총탄, 박격포탄, 곡사포탄 개발에 매진하였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또한 절대 적에게 굴하지 않도록 지휘하는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데 매진하여 15만 명에 달하는 장교를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지속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성원하며, 같은 지역에 위치한 방산업체의 공장장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월 한달 풍산 창립 50주년과 함께 육군3사관학교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생도 여러분의 무운과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장취재 : 중령 고성진, 주무관 배상범, 55기 생도 김유란·신창윤



54기 기자생도 이순영, 이대희, 송주하

# 1968

1968. 10. 15.  
육군제3사관학교로 창설  
창설기에 해당하는 제1기에서  
6기까지의 사관후보생들은  
44~62주까지 교육수로 후 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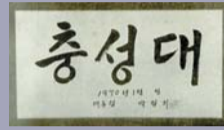
▲ 부대기인수

1969. 3. 18.  
1기생 입교(924명)



▲ 창설 및 1기생 입교식

1970. 1. 23.  
「충성대」 명명  
화랑의 충성심을 이어받자는  
취지에서 작성된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휘호



▲ 박정희 대통령 친필 휘호

1970. 11. 25.  
故 중위 차성도  
(1기) 충혼비 준공

70. 5. 13. 제27사단  
78연대 2중대 1소대  
장으로근무 중 부하  
를 구하려고 수류탄  
을 안고 산화



▲ 충혼비

1977. 9. 5.  
충성연병장 완공(31,100평)  
75. 6월부터 2년에 걸쳐  
완성된 동양최대 연병장



1975. 9. 10.  
학교본부 준공  
◀ 창설초기 학교본관

1974. 9. 27.  
단기 사관학교  
설치법안 의결

1972. 4. 26.  
제2사관학교와  
제3사관학교의 통합

1975. 10. 30.  
지용관 준공  
교수부와 생도대  
본부로 사용



◀ 학무관

1974. 5. 20.  
「충성대신문」  
창간호 발간

1971. 12. 25.  
생도회관 준공  
3~7기 졸업 기념  
사업으로 진행

# 1978

1979. 9. 1.  
성화대 준공  
생도 16기  
기념사업으로 진행



▲ 성화대

1982. 9. 1. 충성탑 준공  
생도 19기  
졸업기념사업으로 진행



▲ 충성탑

1982. 9. 9.  
제19기 생도 졸업 및  
임관(1,335명)  
생도 19기 임관과 함께 생도과정 종료,  
83~95년까지 장교양성 교육과 장교  
보수교육으로 학사학위교육을 담당

1982. 11. 10.  
충성대교지  
창간호 발간

1983. 6. 7.  
호국정 건립  
3사 20기, 학사 3, 4기  
후보생들의 임관기념  
사업으로 건립



▲ 호국정

1985. 10. 4.  
대통령  
부대표창 수상

# 1988

1989. 12. 2.  
근무지원단  
본부 준공

2000. 2. 26.  
생도식당 준공



◀ 운전교장

1995. 10. 4.  
충성대연구소 헌판식

1996. 4. 20.  
생도과정 부활  
(기수 통합)

1990. 6. 6.  
진혼비 제막식  
3사 1기생도과정 교육중 희생자(故 소위  
남중영, 김덕경, 구복남, 노용식)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건립

# 1998

1999. 1. 16. 1 충용관 준공



▲ 충용관

2001. 12. 19.  
지휘검열  
최우수부대 선정

2003. 2. 15.~ 현재  
인접대학들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대구대학교를 시작으로 경희대, 경북대, 고려대 등  
23개 대학교와 학술교류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2008. 6. 23. 청운관 준공



◀ 청운관

2011. 11. 28. 2충용관 준공



◀ 제2충용관

2004. 12. 31.  
육군3사관학교로  
개칭

2006. 10. 15.  
상징 조형탑  
건립



# 2008

2010. ~ 현재.  
경상북도 후원 세미나 개최  
2010년부터 6·25전쟁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017. 2. 16.  
충성연병장  
전광판기부  
(풍산인강)



▲ 학무관

2007. 3. 14.  
꿈과 소망의 언덕 제막식  
사관생도 42기부터  
타임캡슐 봉인



▲ 타임캡슐 행사

2011. 10. 31.  
학사사관 등 후보생 과정은  
학군교로 전환  
사관생도 교육 전달



2018. 10. 15.  
도전 50년, 도약 100년  
개교 50주년



## 사설

## 지천명의 단상

인생에 있어서 50이라는 숫자는 참으로 대단하고 중요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나이 15세에는 학문에 뜻을 두어야 하고(지학, 志學), 30세에는 마음이 확고히 도덕위에 서는 이립(而立)을 하라고 했다. 또한 40세는 불혹(不惑)이라 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하고, 50세에는 지천명(知天命), 비로소 하늘의 명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동양에서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명을 따르는 것을 순천(順天)이라고 하면서 인간사에서 최고의 도리임을 강조하는데 비추어 볼 때, 공자도 50세가 말로 하늘의 뜻을 알고 비로소 인생의 참 맛을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나이임을 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요즘 사람들은 꺾어진 해를 참 좋아 하는 것 같다. 필자도 30여 년 전 대학생시절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선배들로부터 꺾어진 50살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꺾어진 50살이라 해야 고작 25살 흉안의 청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고만고만한 나이대의 학생들 사이에서 4, 5년을 더 살았으니 자신들이 인생의 선배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냥 가볍게 몇 년 더 산 선배이니 나를 존경하라고 말하기가 속스러우니 꺾어진 50살이라는 말을 통해 연륜을 강조하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년, 즉 50년은 그 어떤 때보다 큰 의미를 갖는 해이고, 땅도 농사를 멈추고 쉬어야 하듯 사람도 안식년을 거치는 것이며, 잠시의 휴식을 통해 잃었던 기력을 보충하고 보다 큰 힘과 능력으로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50년은 그 어떠한 말로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인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가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이했다. 인생사에서 50년이 중요하듯 학교사에 있어서도 50년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군에 있어서도 정예초급장교 양성의 요람인 육군3사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월남전과 북한의 대남도발로 촉발된 안보 위기의 시기에 국가안보를 책임질 정예초급장교 양성을 목표로 창설된 육군3사관학교는 창설 이래 수많은 부침을 거듭하였지만, 무려 15만여 명의 초급장교를 양성하여 군의 기간을 형성하였으며, 이제는 명실상부 최고의 초급장교 양성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기에 그 의미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본교는 “도전 50년 도약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50주년 기념행사를



사실 꺾어진 100년이라는 측면에서 50년은 사회적으로도 참 많이 강조하고 의미를 두고 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인간에게 있어서 마치 한계수명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한 세기를 의미하는 큰 숫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현실적으로 도달하기에 어려운 시간이기에 100년에 버금갈 정도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에서 꺾어진 100년으로서 50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방식과 의미로 50년을 중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은 희년이라고 하면서 50년을 중시해 왔다. 이 희년은 성경 레위기에 기록되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복원을 의미하는 때로서 50년 마다 공포되어 온 안식의 해이다. 희년이 되면 누구에게 소속되었던지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려나고 자유가 선포되었으며, 가난 때문에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았던 이들이 그 땅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을 진행하였으며, 이제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100년의 비전을 위해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재도약의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난 50년간 이루어 왔듯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만, 이스라엘이 50주년이 되는 희년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안식을 통해 회복과 재도약을 시도했듯 우리도 지난 50년의 분주함과 도전을 잠시 내려놓고, 지난 50년의 공과를 되돌아보면서 향후 100년의 비전을 새롭게 설계하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할 때이다.

지천명의 나이에 이른 만큼 진정 하늘의 뜻을 살피지는 않더라도 현 시대가 요구하는 육군3사관학교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세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전 2030을 넘어 100년의 역사를 그리기 위한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난 1년간 외쳐온 “도전 50년 도약 100년”의 슬로건을 완성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 시대를 넘어선 탁월한 리더, ‘조조의 리더십’

## 충성대 칼럼

대위 김 태 롱(전투기술학교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군도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 있다. 과거보다 첨단화, 고도화를 이루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최첨단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미래전쟁에서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오늘날 우리 조직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그동안 난세의 간웅으로 평가 받아 온 조조였지만, 현대에는 그의 리더십이 재조명 되고 있다. 후한 말 혼돈의 시대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 패자로 우뚝 솟을 수 있었던 조조의 리더십에는 무엇이 담렸는지 알아보자.

첫째, 뛰어난 용인술(用人術)이다. 조조는 인재 등용에 있어 신분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들을

을 키워 갔다. 또한, 리더로서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 과감한 승부수로 결단력 있게 실천함으로써 중원의 패자(覇者)가 될 수 있었다.

셋째, 효율적인 조직관리 능력이다. 배신과 음모가 만연했던 시대에 그는 정치가이자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군대에서의 지휘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내부 감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쇄신함으로써 조직을 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소들을 관리했다. 또한, 조직 내 상호관계를 이용하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그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갖춘 리더였다. 조조는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손자병법을 읽고 주석을 달며

## 뛰어난 용인술(用人術),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 효율적인 조직관리 능력, 전문성을 갖춘 리더 육성에 매진할 것

아 활용했고, 그 사람의 재주와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운용했다. 당시에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어떤 가문인가를 중 요시했으나, 그 역시 환관의 자손으로 태어나 명문가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허례허식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며 인재를 활용했다. 그 결과는 원소와의 관도대전(200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원소가 병력 70만을 동원해 전투에 나설 당시 조조 군사는 7만 명, 수적으로 10:1의 절대 열세였으나 원소는 병력우세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반면, 조조는 뛰어난 용인술로 참모들의 조언을 적극 수용하여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혼돈의 시대를 조조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변 정세를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원수외도 동맹을 맺으며 자신의 세력

전투에 응용하는 등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리더로서 전문지식을 함양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손자병법은 조조가 주석을 달아 만든 ‘손자약해’의 내용이다. 또한 그는 탁상공론보다는 자신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이면서 주도적으로 조직을 이끌었다. 이처럼 이론과 실제를 겸한 최고의 군사전문가였던 조조는 수많은 과업들에 대한 정확한 우선순위 판단을 통해 대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

혹자는 조조를 비열한 정치가이자 난세의 간웅이라고 평가하지만 혼돈의 시대에 중원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들과 다른 그의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직의 성패는 리더의 역할과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도 나는 정예장교를 육성하는 육군3사관학교 교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막중함을 느끼며 올바른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 민·관·군 환경분야 협력 생태계 구축

## 군 토양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 발전 세미나 개최

지난 9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환경연구센터, 국회환경포럼과 함께 '군 토양환경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환경정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환경관련 기관장을 비롯해 산·학·연·군의 환경전문가 및 관계관 13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 및 토의를 진행했다. 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 환경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라며 "육군은 국가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면서도 나날이 증가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장은 "이러한 노력이 지속 가능한 군 환경정책으로 발전하려면 민·관·군 환경분야의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환경연구센터'는 군 유일의 환경전문 연구기관으로 군내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데 Think Tank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 본교내 창설된 기관이다.

주무관 배상범



# 50년을 되돌아보며 100년 도약의 길을 찾다

## 제22회 충성대 학술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5일, '육군3사관학교 도전 50년 도약 100년'이라는 주제로 '제22회 충성대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이번 충성대 학술세미나는 개교 이래 50년을 걸어온 학교가 그간 쌓아온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군에게는 자긍심이 되고 국민으로부터는 사랑받고 신뢰받는 명품사관학교로 도약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50년을 기념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의 100년 설계를 하기 위해 김정식 교수를 비롯한 군내·외 저명인사를 모시고 고견을 얻고자 ▲미래 사회의 변화 ▲국군(육군)의 변화 ▲육군 3사관학교의 미래라는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주제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의 서용석 교수가 발표를 하고 이명호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제2주제에서는 육군의 변화에 대해 육군정책자문위원이신 이복균 예)준장이 발표하고 이재학 중령이 토론을 실시했다.

특히, 제3주제에서는 학교의 미래에 대해 관점디자이너 박용후 대표가 발표하고 조선일보 유용원 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본교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통해 차별화를 두어야 하며 학교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학교장 서정열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교에서 배출된 정예장교들은 절절포(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과 군에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54기기자생도 서수호



# 발전된 학교, 직접보니 뿌듯



## 개교 50주년 기념 역대학교장 초청행사 마련

본교는 지난 10월 2일 개교 50주년 창설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역대 학교장 초청행사를 가졌다. 이번 초청행사에는 11대 학교장 이정린 장군을 비롯하여 표순배(14대), 이종간(18대), 김충배(19대), 송영근(20대), 김주원(23대), 김윤석(25대), 손무현(26대), 김길영(28대) 장군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학교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現 학교장의 환영 속에 학교에 도착한 역대 학교장들은 석고 핸드프린팅 제작을 시작으로 재임시절 활동영상을 보면서 지금껏 이룩한 업적과 추억을 되새기고 발전된 학교시설을 돌아보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송영근 장군은 "우리 3사관학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이렇게 학교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보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54기기자생도 윤학준

# 정예장교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기대



## 일 간부후보생 400명 학교방문

지난 10월 18~19일 일본간부후보생학교 학교장(소장 키토오 켄지)을 비롯한 간부 및 후보생 400명이 본교를 방문했다. 이번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 방문은 양국 학교 간의 군사협력 관계유지 및 우호증진, 훈육체계 발전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7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12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번 방문 행사는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학교견학, 양국 스포츠 교류, 만남의 시간, 국공체협 등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키토오 켄지 학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장교 양성 교육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본교 학교장은 "지금처럼 상호협력하에 정예장교 양성이란 공동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54기기자생도 권준

# 영상영어교육을 이끈다!



본교 영어학과 정한기 교수(육군대령)가 지난 10월 1일 영상영어교육학회(Society for Teaching English through Media) 제5대 학회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학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정교수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에서 석사학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교수는 인문사회학처장, 충성대연구소장을 역임하고, 6·25 국제학술세미나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한국영어교육학회 및 영상영어교육학회,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ESP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주무관 이경희



갑종192기 예)대령 서중근

손자가 다니는 육군3사관학교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6기 예)대령 김장흠

반세기 역사 속에서 성장한 육군3사관학교! 국가안보의 역군으로 영원히 빛나길 기원합니다.



23기 예)중령 이창주

대한민국의 50년 역사와 함께해 온 3사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앞으로도 충성대에서 새 끼호령이들의 포호가 계속 울려 퍼지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28기 예)대령 송명섭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100년 도약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푸르른 사관!



42기 예)대위 김병선

모교의 발전이 전역후에도 느껴져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후배들이 보기 부끄럽지 않은 3사 출신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시설본부 중령 이경한(30기)

성실함과 신뢰감으로 끈임없이 도전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후배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54기 박태원 생도

선배들이 이어온 격동의 50년 후배들이 100년까지 이어나가자!



54기 심진보 생도

학교의 50주년을 기념하며 훌륭한 장교가 되어 더욱 더 3사를 빛내겠습니다.



54기 윤학준 생도

위기가 커지면 기회도 강해진다. 3사관학교 파이팅!



54기 이대희 생도

명품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에 대한 애교심은 깊어만 갑니다. 100년 도약 함께 하겠습니다.



54기 이순영 생도

50년 우리가 걸어온 길 수백년 지금처럼 영원하길!



55기 김유란 생도

사계절이 오면 자연스레 꽃이 피고 눈이 오듯 우리 모두 존재 자체로 소중한 이를 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생도 배애휘

군 생활을 하며 할 말은 하고 사는 장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생도 장재혁

선진병영과 높은 전투력을 지닌 장병들을 길러주는 데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생도 안은비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그 무엇보다 국민을 우선시 하는 따뜻한 장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생도 연다흠

후배들이 거친 풍랑 속에서도 믿고 뒤따를 수 있는 등대의 불빛이 되어주세요!



학교 주임원사 조종태

'도전 50년 도약 100년'의 전통을 계승하고 밝은 미래의 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근무지원단주임원사 전경익

대한민국과 함께한 육군3사관학교의 50주년 발자취를 뜨거운 가슴으로 축하하며 통일시대의 미래 100년을 위해 맡은 소임을 완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 육군3사관학교 개교50주년 50년의 도전 100년의 도약



## 50인이 축하하는 육군3사관학교 개교 50주년!

오늘날 학교의 빛나는 전통과 명예는 유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이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갈 것입니다.

54기 기자생도 김찬영, 박태원 & 55기 기자생도 김홍윤, 고명환, 박동주, 현선학





31사단소령 기노엽(38기)

장교는 군대의 기간입니다.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통찰력있고 권위가 있는 훌륭한 장교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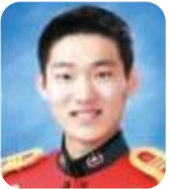
50사단대위 손병재(45기)

소위로 임관하고 나면 생애에 생애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임관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육군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3사인이 되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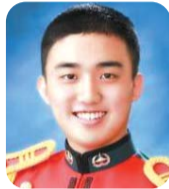
13항공단대위 오영석(48기)

군생활 간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큰 버팀목 중 하나가 지금 생활하는 동기들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며 함께 가십시오.



55기 김홍윤생도

자부심! 3사관학교는 사관생도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고 과거와는 다른 더 나은 오늘이 내게 되게 해주었습니다.



55기 박동주 생도

대한민국의 찬란한 과거와 힘찬 미래를 책임질 육군3사관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55기신창윤 생도

3사관학교는 연결고리다. 과거 50년과 미래 5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줄 가장 중요한 산증인이기 때문이다.



55기 현선학생도

신뢰의 상징 대한민국 육군. 그 육군의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3사관학교의 개교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5기 이수현 생도

개교50주년과 함께 조국을 가슴에 품고 오늘까지 도전해왔습니다. 이제 도전을 넘어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예비생도 김정택

선배님들이 먼저 아전에 가서 진실된 행동으로 부하들의 마음을 여는 장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대대 주임원사김경수

대한민국 육군의 중심에 서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위풍당당하고 멋진 장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업과 개인발전에 더욱 더매진하길 기원합니다.



교수부 교육계획관 사관관 강경웅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육군3사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훌륭한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정보통신군대대 주무관 조명철

수많은 정예장교를 배출하여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줬고 앞으로 더욱 훌륭한 장교가 배출되리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교육지원대대병장 김병찬

50년의 역사를 안고 100년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로서 정예장교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대대대령 김석진

영천의 아름다운 하늘 아래 50년 동안 한결같이 정예장교를 육성하고 있는 육군3사관학교에 복무하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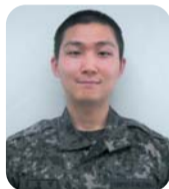
정보통신대대병장 경명호

"溫故而知新(온고이지신, 可以爲師矣(가이위사의))" 우리학교 또한 50년의 찬란했던 시간을 발판삼아 100주년까지 뛰어오를 수 있을것이라 믿습니다!



보급근무대 일병 김찬석

현재에 만족하지않고미래를 위해 힘찬도약을 하고 있는육군3사관학교의 한 발자국이 되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음에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본부근무대 일병 신정언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그 중심에 항상 육군3사관학교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비근무대일병 이호중

썩어익은 사과를 따먹고 시련 속에서 인내하듯이 저희 3사관학교의 썩어익은 사과를 따먹고 앞으로 이 썩어익은 사과를 따먹고, 꿈의 열매로 거듭되는날을희망합니다.



54기 윤학준 생도 부모

3사관생도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3사관학교의 5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4기 박태원생도 부

육군3사관학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54기 이순영 생도 부

생도, 용사, 간부 등 모든 학교관계자들이 흘린 땀에 상응하는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54기이대희 생도 부

개교 5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호국양성의 요람이 되어 이 세상을 진전히 비추는 별이 되십시오.



55기 김유란생도 모

최정에 장교를 양성하는 본교에 우리 자녀가 일원으로 참여함에 부모로서 크나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3사관학교 파이팅!



55기 김홍윤 생도부

나와 아들을 선배의 후배로 이어주는 국가의 자랑스러운 거대한 나뭇잎을 만들어 줄 사관과의 연을 이어주는 학교이다.



55기신창윤 생도 모

육군3사관학교는 단비이다. 생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개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55기 박동주생도 부

희망의 기쁨으로 세운 50년의 전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육군3사관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55기 현선학생도 부

50년간 약진해 왔다면 향후 50년은 비상할때입니다.



육사 편집장소지은 생도

3사관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육군 장교라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군생활의 동반자로 함께 꿈을 향해 노력합니다.



공사 편집장 신재우생도

조국수호 의지로 어깨를 나란히 한 육군3사관학교의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해사 편집장이선우 생도

육군3사관학교는 거꾸집이다. 명예로운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 조국을 수호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꾸집이다.



간사 편집장 박수빈생도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고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입니다. 3사관학교의 내일은 지금껏 걸어온 시간보다 더 빛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3사 편집장 김친영 생도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는 반세기 동안 빛났고, 앞으로는 더욱 더 빛날 것입니다. 육군3사관학교의 일원이란 게 자랑스럽습니다.





**50대 명산을 오르며 100년의 도약을 꿈꾸다!**  
 “대한민국 평화통일과 국토수호 다짐 결의”

본교는 10월 20일 대한민국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국토수호 다짐대회를 실시했다. 한라산 지리산 등을 포함한 50개 명산을 등반하면서 대한민국 국토를 내가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의를 다져(동문·현재생도) 미래(예비생도, 가족 등) 다짐하는 행사이다. 중사조성은 & 방장 김여호수, 일병전상배, 일병 박정근

**2018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18. 8. 1~10. 29 기부현황)

총자산 70억 6,296만원 (2018. 10. 29 기준)

**■ 우인/타교정간부 ※별례:기부액(총액 누계)**

- ▶ **우인(개인/단체)**: 조재욱 10(166), 두림아스카와 1000(3000)
- ▶ **신분미확인**: 31기신원미상 10(10)

- ▶ **육사간부**: 정한기(397) 262, 이희범(47) 3(66), 박병호(47) 3(8), 김영환(47) 3(46), 손익수(47) 3(22), 홍성아(47) 3(4), 두석주(51) 3(128), 이우진(51) 3(30), 박기홍(57) 3(90), 이승규(57) 3(11), 조성근(57) 3(104), 변용성(57) 3(69), 손창호(57) 3(28), 이귀현(57) 3(64), 이주철(57) 3(48), 차도원(57) 3(22), 김대영(57) 2(135), 이은희(57) 3(58), 김진현(61) 3(32), 홍희종(61) 3(64), 마희희(67) 3(20), 문준호(67) 3(12), 이찬우(67) 3(7), 부형준(67) 3(22), 이영근(67) 3(3)
- ▶ **학군사관**: 이진호(247) 3(50), 구희곤(271) 3(71), 유원근(367) 3(46), 전성권(367) 3(33), 송경재(371) 3(9), 나창근(471) 3(3), 조환희(471) 3(6), 황태열(471) 3(22), 김도현(471) 3(60), 김평서(471) 2(20), 김광문(471) 3(7), 김재은(471) 1(23), 조동열(471) 3(9), 김태홍(471) 3(9), 구민수(527) 3(50), 유강민(527) 3(9), 황기영(547) 3(3)

- ▶ **학사사관**: 박우(71) 3(61), 박진만(271) 4(4), 최재호(271) 3(62), 이준수(371) 3(76), 신용재(471) 2(22), 김영자(471) 3(1), 김미경(471) 3(2), 임도현(471) 3(7), 박민호(571) 2(4), 이희지(571) 3(16), 손성웅(571) 2(96), 성현애(571) 3(14), 심정현(571) 2(22), 전여울(571) 3(22)

- ▶ **기타교정**: 차성복(여군#45) 3(9), 최순조(여군#46) 3(20), 김고운(여군#47) 2(1), 서나한(여군#47) 3(10), 강소영(여군#49) 3(4), 이희정(여군#49) 3(5), 김형태(단기#22) 3(21), 박진범(단기#26) 3(9), 유현성(단기#26) 3(3), 임윤호(단기#27) 3(3), 김세영(단기#28) 2(8), 김연일(단기#34) 3(11), 김가람(교수#18) 3(4), 신하영(교수#18) 3(4), 양웅석(교수#18) 3(4), 이지성(교수#18) 3(4), 정영진(교수#18) 3(4), 최우혁(교수#18) 3(4), 최윤정(간사#38) 6(6), 송미애(간사#49) 9(9), 김태우(군#45) 3(34), 김동중(부사교#21) 3(3), 권태원(특약#55) 3(3), 이미진(민간#16-3) 3(3)

- ▶ **부사관**: 이학수(준위) 3(6), 이각우(원사) 2(20), 전경역(원사) 3(35), 김태환(상사) 3(35), 진장철(상사) 3(40), 전원익(상사) 3(3), 우의택(상사) 3(46), 하진규(상사) 3(18), 전병렬(중사) 3(10), 이신혁(하사) 3(9)
- ▶ **군무원**: 김미혜 3(17), 김영건 3(45), 김민수 3(3), 남희정 3(3), 류재은 3(129), 배상범 3(22), 양성우 3(31), 정세근 3(4)

**■ 졸업·재학생 부모**

- ▶ **졸업생 (가나다순)**: 박한태, 김중국, 김경근, 이창주, 조경태, 김중갑, 김동환, 권기호, 장순일, 성동호, 안순봉, 윤우상, 이경자, 이상화, 정경숙, 홍원보, 김현미, 이영미, 이선화, 정병관, 정정화, 박일섭, 이영민, 조정숙, 홍성기, 황경부

※ 졸업 및 재학생 부모 상세기부현황은 사무국(054)330-3180 문의 / 재단홈페이지(www.kaaf.or.kr) 참조 바랍니다

- ▶ **4학년(가나다순)**: 강성봉, 곽광삼, 김영진, 박한욱, 심경보, 윤명남, 이기성, 이선미, 이인섭, 윤명남, 전외순, 정외순, 조성순, 조은조, 주옥자, 홍성은
- ▶ **3학년(가나다순)**: 고창희, 김동환, 김상근, 김태원, 김한수, 박천규, 박철, 서원수, 신중대, 양용승, 윤연희, 이강진, 이광규, 이상용, 이원재, 조희권, 전근희, 정원섭, 정수태, 정진사, 천동호, 한순옥, 홍기웅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별례:기부액(총액 누계)**

- ▶ 1기 남훈조 2(1000), 임관택 3(46), 이기권 2(551), 전주현 3(63), 최익환 3(49)

- ▶ 2기 윤경혁 4(470) ▶ 3기 김연석 2(566), 정영집 15(2000), 한민우 1000(6000)
- ▶ 7기 김동주 5(11), 김병수 1(53), 김형수 1(13)
- ▶ 9기 김현기 15(1048), 권영호 5(250), 윤지현 9(41), 최병학 20(1066)
- ▶ 10기 최영돈 1000(6000), 정인수 1(18) ▶ 11기 정사 1000(1000)
- ▶ 14기 김중환 3(22), 안호 4(1500), 이종원 10(160), 허병우 3(337)
- ▶ 15기 김성민 6(241), 박경환 13(251), 박홍우 2(43), 정태환 100(100)
- ▶ 16기 이종우 3(126), 황병태 6(250) ▶ 17기 신석산 100(100)
- ▶ 18기 구연덕 3(96), 김용배 9(468)
- ▶ 19기 김익수 10(156), 이영희 3(39), 이종형 3(203), 이창호 9(474), 임종철 3(61), 홍성식 4(164)
- ▶ 20기 김윤희 3(63), 박민수 3(114), 서정열 3(306), 조길상 4(26) ▶ 21기 신철수 6(518), 권순태 3(18), 신대호 5(73), 원용경 2(65), 이진성 3(22), 정경호 3(10), 조태환 3(102)
- ▶ 23기 김영덕 450(1001), 김경수 6(12), 김태일 3(196), 배요식 3(108), 신광수 10(33), 신영찬 3(38), 오승욱 2(16), 정철재 6(68), 허강수 10(187)
- ▶ 24기 권극락 2(162), 권오봉 3(180), 김경봉 6(114), 김도현 3(196), 김성배 2(294), 남용구 6(220), 모경원 3(193), 문기현 2(94), 박세철 3(37), 방성대 4(47), 송기훈 3(10), 안연준 3(6), 이문희 3(6), 정정현 3(156), 차경재 3(22), 홍성희 100(100)
- ▶ 25기 김만경 3(108), 김희식 3(178), 박원규 3(46), 서상권 3(32), 이상복 3(4), 장광선 9(276), 전창호 9(118), 전희준 2(271), 조재희 3(89), 홍은표 2(166)
- ▶ 26기 고창준 3(92), 김영선 5(351), 박운옥 3(170), 신태영 3(80), 임우영 3(210), 장윤민 6(62), 홍순범 3(177)
- ▶ 27기 김덕수 3(34), 김호복 3(165), 석수열 3(13), 안병욱 10(135), 우성재 3(6), 원희문 15(75), 이희순 3(206), 전태환 100(200)
- ▶ 28기 관승영 1(6), 권양철 2(74), 김진길 3(46), 김하영 3(11), 박기수 3(58), 박용섭 6(105), 백중국 6(207), 서정수 3(138), 연경수 3(8), 유정일 2(6), 윤석찬 3(107), 윤재진 6(228)
- ▶ 29기 김강식 3(21), 김민수 3(4), 박성훈 3(119), 이상일 3(154), 이상태 6(164), 이규 3(81), 임성호 3(130), 최인섭 3(92), 최준근 3(159), 한태성 3(116)
- ▶ 30기 고성진 3(4), 김중권 2(50), 김효성 3(10), 남준우 3(21), 이진 2(115), 임상달 3(65), 우경호 2(77), 함민호 3(66), 홍성범 3(3)
- ▶ 31기 구성태 1(73), 김민식 4(30), 김영태 3(148), 김희업 2(191), 염향수 3(102), 이재준 3(173), 이호복 3(14), 정동진 6(161), 최정국 3(3)
- ▶ 32기 권관덕 10(233), 김화영 3(79), 조원상 3(178)
- ▶ 33기 김남식 3(129), 김상선 3(106), 김진년 3(87), 김현규 4(321), 남성진 3(105), 노일 9(62), 안영일 3(200), 안준영 8(25), 윤홍일 2(151), 조영진 4(81), 조우철 2(128), 조재봉 3(76)
- ▶ 34기 권성진 3(97), 김기수 3(146), 김동기 2(194), 김윤성 4(11), 신정원 3(32), 이형국 3(65), 안창환 4(46), 정윤민 3(142), 정찬근 3(72), 정훈철 3(22), 조수창 3(147)
- ▶ 35기 김병수 3(45), 김수철 3(35), 박병준 9(206), 박상우 3(54), 박시근 2(149), 손득순 3(55), 이문희 3(116), 임창규 3(73), 정영아 1(1), 장준수 3(110), 전기홍 3(44), 전성광 3(4), 정영석 3(72), 정호준 3(20), 조원준 3(94), 한중훈 6(289)
- ▶ 36기 고마은 3(11), 김기민 2(2), 김명규 6(36), 김성남 2(5), 김현 3(94), 김문수 3(39), 안경우 9(164), 양현승 3(172), 이광희 4(117), 이규호 3(81), 이다재 2(43), 이호진 3(208), 임종수 3(36), 장세호 3(167), 정우철 3(102), 조동진 3(183), 진연수 3(127)
- ▶ 37기 강성룡 3(131), 김남훈 2(165), 김양훈 9(136), 김지민 3(49), 김충기 6(77), 김홍년 3(198), 노진철 3(112), 박병철 3(35), 백인성 2(199), 소병민 3(4), 송석복 6(83), 송용섭 6(217), 안홍선 3(202), 옥원호 4(99), 이관모 3(105), 이원형 6(205), 이희식 3(83), 임원철 3(130), 전성진 3(93), 정우진 3(36), 정화철 3(92), 함성규 3(69), 허지용 3(71)
- ▶ 38기 모윤하 3(199), 문정민 3(82), 문현성 3(195), 서현호 2(195), 송태영 3(41), 신승은 3(63), 유정일 1(66), 이경식 3(49), 이정용 6(60), 정한우 2(12), 함기훈 3(64)
- ▶ 39기 강병철 2(176), 권영호 10(120), 김의진 3(91), 김인경 3(49), 박철근 3(84), 송진근 3(84), 송창현 5(45), 심우은 3(53), 이대화 2(174), 이웅렬 3(74),

- ▶ 40기 구자운 6(100), 김대경 2(150), 김덕성 2(2), 김백민 2(161), 김영우 9(139), 김종욱 3(41), 김평준 3(57), 김형수 1(136), 문수혁 3(103), 박상규 2(55), 박진하 3(56), 송석준 3(101), 유희선 3(47), 이호연 15(513), 최창국 10(59)
- ▶ 41기 김석진 4(130), 김재현 3(68), 박한지 2(148), 방현우 5(40), 손종욱 3(58), 우정욱 2(47), 임성은 3(47), 정기채 2(45), 전종상 5(2), 최민규 3(66), 최지능 2(71), 김재석 3(68), 강정희 3(117), 권영민 2(136), 김경민 4(42), 김동우 3(90), 김용민 3(26), 문보승 3(88), 박호진 2(116), 손병현 3(134), 윤희철 2(108), 이기우 3(58), 이상우 3(9), 이승운 2(114), 이신일 3(69), 이우혁 3(120), 이형진 2(3), 정민기 2(108)
- ▶ 43기 김민식 6(167), 김인중 3(200), 노창래 3(8), 박민영 3(104), 백두산 6(164), 이도훈 3(92), 이남억 3(53), 이상민 2(105), 이상운 3(69), 이광희 6(151), 이상영 3(3), 허광석 3(64)
- ▶ 44기 김대은 3(68), 김성남 2(68), 김경희 3(69), 서동준 3(102), 윤병희 3(135), 오두현 2(110), 오진우 4(64), 은종우 3(62), 이민재 3(95), 이희성 6(78), 이영민 2(103), 은종우 2(2), 함찬우 3(81)
- ▶ 45기 김성수 2(72), 김동호 2(100), 박민규 1(97), 박영일 2(97), 박지훈 3(63), 서석관 5(9), 서우정 1(66), 엄규현 5(65), 유재훈 3(23), 이진희 1(95), 임우성 4(6), 신우철 2(90), 정재현 2(97), 정진우 5(100), 채희용 5(77), 최충수 2(102), 황도현 3(70), 황승세 2(100)

**1억원기부의 원동력은 감사**

개교 50주년 뜻 깊은 행사 중 100년 도약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최영돈(3사#10) 동문의 발전기금 1억원 기부는 15만 동문들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다. 기부자는 공병장교로 임관 소령 예편 후 건축회사를 재직하다 퇴임 한 평범한 소시민이었으나 삶의 내용만은 남달랐다. 오늘의 자선이 있기까지 영향을 준 단체에 대한 감사로부터 그의 기부는 시작되었다. 위탁교육 받은 부산대(1천만원), 부인의 내조에 대한 감사로 이화여대(1억원), 3사관학교(1억원), 육사(1천만원), 부산대학교(1천만원)에 기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1억원) 아내사이버티 회원이며 헌혈을 374회 실천한 적십자 최고명예대장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가 고액기부를 실천할 수 있었던 힘은 자신의 재력이 아닌 감사임을 그의 삶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번 기부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에 3사관학교가 준 영향과 감사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